아동의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검증Received: April 14, 2024
Revised: May 12, 2024
Accepted: May 20, 2024김상원¹, 이혜숙², 남동현³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조교수¹,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심리상담사²,
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심리상담사³교신저자: 이혜숙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7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among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self-esteem,
and depressive moodE-MAIL:
namumoonhs@gmail.comSangwon Kim¹, Hyesook Lee², Donghyun Nam³
Han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¹
YONSEIBOM Psychiatry Clinic/ Psychological Counselor²
DODREAM Psychiatry Clinic/ Psychological Counselor³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그릿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에서 초등학교 4학년 데이터의 1차년도에 해당하는 2,607명의 응답(남자 50.4%)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동이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그릿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다시 말해 아동의 그릿 수준에 따라 해당 경로가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 방향을 탐색하며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정적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우울감, 그릿, KCYPS 2018



© Copyright 202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1년 발표된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997명 중 12.8%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최정원 등, 2021). 우울감을 넘어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은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10대 미만의 소아우울증 환자 수는 70.2% 상승했으며, 10대 환자 수는 90.2%로 크게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2년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6,275명 학생들(만6세-만17세) 중 16.1%가 현재 우울장애 및 양극성장애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들 중 1.0%는 주요우울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된다(곽영숙, 2024).

우울장애는 일정 기간 동안 불행한 기분, 흥미 상실, 식사와 수면 등의 신체 활동 변화, 피로감, 집중 곤란 등이 지속되어 유의미한 기능 손상이 있을 경우 진단된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에는 우울장애의 하위유형으로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진단명인 지속적인 과민한 기분과 극단적인 행동 통제 곤란을 증상으로 하는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를 추가하여 성인기 우울과 구별되는 아동기 우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돕고 있다. 아동의 우울증은 슬픈 모습, 초조함, 심하게 울거나 짜증이 많아지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며, 학교생활이나 학업 수행에 대한 과도한 걱정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권준수, 2015).

아동이 경험하는 우울감은 학업 문제, 또래 관계의 어려움, 반사회적 행동, 가출, 사회적 철회 등 다양한 이차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Hammen, 2009), 발달 과업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최은실, 방희정, 2010). 아동기 우울 증상은 성

인기 우울 장애의 발생을 예측하며(홍강의, 2023; Aronen & Soininen, 2000), 증상이 회복되었다라 도 다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우울에 대한 임상적 연구와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Hammen, 2009; Curry et al., 2011).

Pearlin과 그의 동료들은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과 매개 요인들 간의 관계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Pearlin et al., 1981). 관련하여 또래 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학령기 아동의 정신건강에 특히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고 있다(강석임, 2022; Hammen et al., 2004). 먼저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의 비중이 커지는 학령 후기로 갈수록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정옥분, 2024), 우울의 주요 예측 요인이 된다(Funkhouser et al., 2022).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감을 높이는 반면(유설희 등, 2015), 또래 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아동의 우울감을 가속화한다(Hammen et al., 2004; Martin & Huebner, 2007; Roach, 2018). 아동기에 경험하는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청소년기를 넘어 장기적으로 성인기까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학령기 또래관계와 우울감 간의 안정적인 관련성을 지지한다(Allen et al., 2014; Bagwell et al., 1998; Bean et al., 2019).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또래 관계는 성인기의 자기가치감과 적응에 영향을 주었고(Bagwell et al., 1998), 16세 때의 어려웠던 또래 관계는 43세의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쳤다(Bean et al., 2019).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Rosenberg, 1965). 자아

존중감은 건강한 적응 및 성격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며(윤혜미, 류나미, 2007),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urnaz et al., 2020). 또래관계 경험이 중요해지는 학령 후기 아동들은 또래를 사귀고 유지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감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는 곧 자아존중감과도 연결된다(정미선, 2010). 또래에게 수용될수록, 또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보고된 반면(박경리, 김경연, 2001; 여종일, 정문자, 2009; 유설희 등, 2015),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했다(장운정, 신유림, 2010). 또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감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김갑숙 등, 2009; 안윤숙, 김흥주, 2014; Suzuki and Tomoda, 2015). 캐나다의 아동(13세-18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 좋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Bosacki et al., 2007)는 아동의 부정적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를 통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로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또래 관계에서의 수용은 우울감의 예측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보인다(Adedeji et al., 2021). 그러나 부정적 또래 관계가 우울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보호 요인이 존재한다면, 우울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아동이 그릿(Grit)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이 원하는 목표나 관심을 장기간 유지

하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지속하는 끈기를 지닌다(Duckworth et al., 2007). 국내에서 그릿과 관련한 연구는 학업 성취를 비롯한 개인의 수행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김선정, 김봉환, 2022; 이은경, 이선희, 2021),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그러나 Duckworth와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릿은 개인의 성격 강점, 도전에 직면했을 때 끈기를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를 설명하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Duckworth et al., 2007). 즉, 아동의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에 싫증이 나더라도 쉽게 방향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고 흥미를 유지하며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길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우울로 이르는 경로에서 그릿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선행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의 역할(임혜정, 유백산, 2022)을 고려했을 때, 우울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으로써의 그릿을 검토해 볼 수 있게 한다.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소진(조선화, 2019),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 무기력(김나래, 2023), 빈곤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감과 행복감(송혜리, 2020),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정성(Yang et al., 2022), 완벽주의와 우울(Zhang et al., 2021) 등 각각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은, 비록 전술한 연구들이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지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그릿의 적용 여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그릿이 아동기 심리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그릿이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역할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아동에게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1.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때 그릿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에서 초등학교 4학년 데이터 중 1차년도 응답을 활용하였다. 동패널 데이터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핵심 변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첫 년도에 수집된 2,607명의

응답 모두를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는 없었다.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거의 유사하였으며(남자 1,313명, 50.4%) 응답자는 중소도시(44.2%)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40.0%)와 읍면지역(15.8%)이 그 뒤를 이었다. 아동의 부모(또는 보호자)는 자녀의 주 양육자에 대해 대부분이 ‘어머니(90.2%)’라고 답하였으며, ‘아버지(5.6%)’와 ‘(외)할머니(3.1%)’가 그 뒤를 이었고, 그 밖에 ‘기타 친인척(0.5%)’, ‘(외)할아버지(0.3%)’, ‘형제자매(0.1%)’가 포함되었다. 부모(부모가 안 계시는 경우 보호자의 응답) 각각의 최종학력을 물어보았을 때 가장 높은 학력을 기준으로 64.7%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답하였고 고등학교 졸업(18.5%), 대학원 졸업(14.7%)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학력으로 대신 답한 경우는 21건(0.8%)이었다.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과 관련해서는 ‘보통(77.5%)’이라고 보고한 보호자가 가장 많았고, ‘하(11.7%)’, ‘상(8.7%)’, ‘최하(1.4%)’, 그리고 ‘최상(0.3%)’이 뒤를 이었다.

연구도구

부정적 또래관계

부정적 또래관계는 배성만과 동료들(2015)이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13문항 중 부정적인 또래관계에 해당하는 6문항을 포함하였다(예: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Chi-square = 32.305, $df = 5$, $p < .001$; CFI = .976, TLI = .953, RMSEA = .046). 문항의 응답보기는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구모형 분석 시 문항의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 alpha값은 .604이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문항을 김지경과 동료들이 번안하여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사용한 문항을 다시 수정·보완해 2018 패널에 포함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보기는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문항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 모두를 포함하는데 평균값을 구할 때 부정문항으로 서술된 경우(2번, 5번, 6번, 8번, 9번)는 역코딩해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 alpha값은 .833이다.

우울감

우울감은 김광일과 그 동료들(1984)이 개발한 간이 정신진단검사에서 우울척도 13문항 중 수정하여 포함한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우울감 문항(예: “기운이 별로 없다”)은 응답보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하여 질문하였고, 평균값을 구해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 alpha값은 .892다.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009)이 개발한 문항을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역해 타당화 한 문항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그릿은 흥미 유지(4문

항)와 노력 지속(4문항)을 포함한 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로 정의되었다. 전체 문항 중 1, 3, 5, 6번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역코딩하여 포함하였고, 전체 문항의 평균값이 연구모형에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그릿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 alpha값은 .728 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우울감 간의 관계가 그릿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모형은 SPSS 28.0 프로그램과 Hayes (2018)의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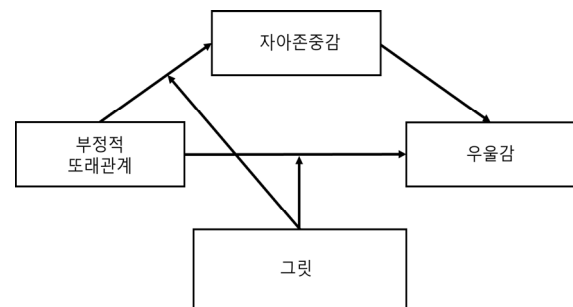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때 a, b, c는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친구관계(X)와 그릿(W)의 경우 평균 중심화 처리를 수행했으며, 이는 연구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홍세희, 정송, 2014).

$$M = i_M + a_1X_c + a_2W_c + a_3X_cW_c + e_M \quad (1)$$

$$Y = i_Y + c'_1X_c + bM + e_Y \quad (2)$$

먼저, 아동의 부정적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우울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ROCESS Model 4를 적용해서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PROCESS Model 8을 적용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동 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복원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경험적 분포를 생성한 후, 그 결과로 얻어진 신뢰구간을 바탕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는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반복 실시하여 얻은 95% 신뢰구간을 토대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MacKinnon et al., 2004). 마지막으로, 아동의 그릿(W)의 수준에 따라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동일하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절변수인 그릿의 수준이 16%, 50%, 84%일 때 독립변수의 효과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수행하였다(Hayes, 2017). Hayes(2013)는 Process Macro의 결과에서 보이는 모든 효과에서 비표준화 계수(B)가 표준화 계수(β)에 비해 응답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제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

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인의 정규성 가정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et al, 1996).

표 1. 연구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n = 2,607)

변인	1	2	3	4
부정적 또래관계	-			
자아존중감	-.397***	-		
우울감	.425***	-.643***	-	
그릿	-.394***	.551***	-.500***	-
평균	1.803	3.219	1.532	2.847
표준편차	.481	.473	.534	.477
왜도	.254	-.602	1.124	.195
첨도	-.031	.190	1.140	-.150

*** $p < .001$.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표 2와 표 3 참조). 그 결과,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력(R^2)은 .157, F 값이 486.115($p < .001$)로 해당 모형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서 부정적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모형의 설명력(R^2)은 .448, F 값이 1056.051($p < .001$)로 모형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또래관계는 아동의 우울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아동의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감이

표 2.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선	상한선
절편	3.219	.009	378.746***	.000	3.202	3.235
부정적 또래관계 (X)	-.390	.018	-22.048***	.000	-.425	-.355
$R = .397, R^2 = .157 F = 486.115 p = .000$						

*** $p < .001$.

표 3.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선	상한선
절편	3.578	.058	61.490***	.000	3.464	3.692
부정적 또래관계 (X)	.225	.018	12.750***	.000	.190	.259
자아 존중감 (M)	-.636	.018	-35.477***	.000	-.671	-.601
$R = .669, R^2 = .448 F = 1056.051 p = .000$						

*** $p < .001$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역시 우울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설정해 해당 모

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표 4 참조).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473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부정적 또래관계가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는 .225,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248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매개한 간접효과는

표 4.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와 우울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변수	Effect	SE	t	p
총효과	.473	.020	23.991***	.000
직접효과	.225	.018	12.750***	.000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248	.014	.220	.277

*** $p < .001$.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아동이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맺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림의 조절효과

아동의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그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표 5 참조). 동 모형은 설명력(R^2)이 .344, F 값이 454.628($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또래관계와 그림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부정적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그림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B = .083, p < .05$). 즉,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B = -.206$),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양수이므로($B = .083$) 부정적 또래관계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라면 그림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의 수준에 따라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pick-a-point 방식으로 알아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전반적으로 아동이 부정적 또래관계를 가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림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덜 가파른 형태를 보여 그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덜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및 그림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i>B</i>	<i>SE</i>	<i>t</i>	<i>p</i>
절편	3.226	.008	400.552***	.000
부정적 또래관계(X)	-.206	.017	-12.120***	.000
그림(W)	.468	.017	27.202***	.000
부정적 또래관계 × 그림	.083	.033	2.544*	.011

$R = .586 \quad R^2 = .344 \quad F = 454.628 \quad p = .000$

*** $p < .001$, * $p < .05$

표 6. 그림의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림	Effect	<i>SE</i>	<i>t</i>	<i>p</i>
.528(상)	-.163	.025	-6.551***	.000
.028(중)	-.204	.017	-11.932***	.000
-.472(하)	-.245	.022	-11.026***	.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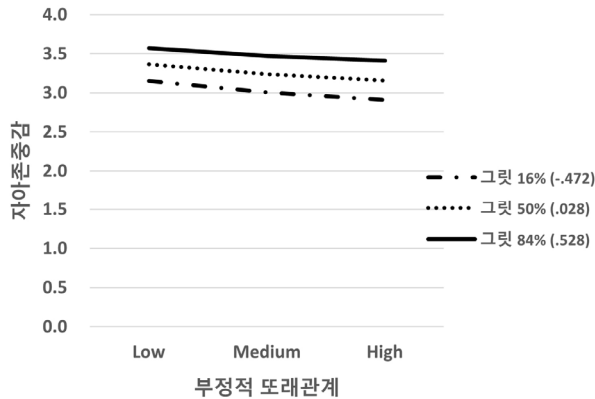


그림 2. 그릿에 따른 부정적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 관계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그릿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7 참조). 동 모형은 설명력(R^2)이 .470이고 F 값이 577.187($p < .001$)로 모형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또래관계와 그릿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되었으므로, 부정적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그릿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준다($B = -.145, p < .001$).

그릿의 수준에 따라 부정적 또래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pick-a-point 방식으로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그릿 수준이 16%, 50%, 84%일 때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의 효과값은 모두 p 값을 기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또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릿의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그릿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낮아지는

표 7.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및 그릿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i>B</i>	<i>SE</i>	<i>t</i>	<i>p</i>
절편	3.267	.065	50.478***	.000
부정적 또래관계 (X)	.183	.018	10.287***	.000
자아존중감 (M)	-.543	.020	-27.284***	.000
그릿 (W)	-.197	.020	-9.943***	.000
부정적 또래관계 × 그릿	-.145	.033	-4.399***	.000

$R = .686 \quad R^2 = .470 \quad F = 577.187 \quad p = .000$

*** $p < .001$.

표 8. 그릿의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그릿	효과	표준오차	<i>t</i>	<i>p</i>
.528(상)	.106	.025	4.173***	.000
.028(중)	.179	.018	10.024***	.000
-.472(하)	.251	.023	10.874***	.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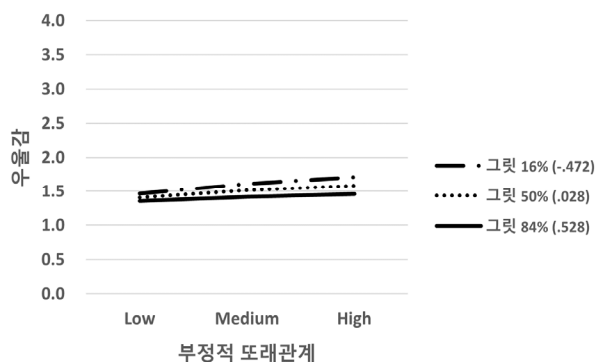


그림 3. 그릿에 따른 부정적 또래관계와 우울감 간의 관계

형태를 보여 아동의 그릿이 높을 때 부정적 또래 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우울감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그릿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유의성은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로 확인하였으며, 이때 조절된 매개효과는 직접검증이 불가능하므로 간접효과 검증방법인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045$ 로 95%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Boot SE: $.018$, 95% CI: $-.080 \sim -.009$). 조절된 매개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해 그릿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어서 살펴보았다. 그릿의 수준의 16%(-.472), 50%(.028), 84%(.528)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해 변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

표 9. 그릿의 조절효과에 따라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

그릿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CI	
			LL	UL
.528(상)	.088	.013	.064	.114
.028(중)	.111	.011	.090	.132
-.472(하)	.133	.016	.103	.164

과, 모든 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릿의 모든 수준에서 부정적 또래관계와 우울 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울기가 덜 가파르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그릿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학령기 아동에게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인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완충할 수 있는 그릿의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우울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동의 부정적 또래 관계와 우울감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하였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감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우울감 간의 장기적 연관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또래관계가 빈약했던 4-16세의 아동들이 성인(22-35세)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했던 아동들에 비해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는 연구(Sakyi et al., 2015)는 아동기 또래 관계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학령기에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한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초래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박경리, 김경연, 2001; 여종일, 정문자, 2009; 유설희 등, 2015, 장운정, 신유림, 2010),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Caldwell et al., 2004). 캐나다와 일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한 각각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우울 간의 부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나타났으며(Bosacki et al., 2007), 한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또래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고 나타났다(여종일, 정문자, 2009). 이 결과들은 아동기에 겪는 우울감에 대응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사회성 기술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건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참고할 수 있는 한 예로 2021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불안·우울 청소년 상담 개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형성 기법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수립하도록 돕는 방안이 고안되었으며, 그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다(서수연 등, 2021).

둘째,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그릿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그릿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동 연구 결과는 빈곤한 상황에 처한 중학생들 사이에서 그릿이 사회적 위축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통해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연구(송혜리, 2020)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대인 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Yang et al., 2022)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적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지만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우울 정도가 낮아졌으며(Musumari et al., 2018), 성인의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23). 이는 그릿 수준이 높은 개인이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에 비해 더 빨리 잊고, 감정적 영향을 덜 받아 부정적인 경험을 빠르게 극복한다는 연구(Walker et al., 2020)와 그릿과 회복력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다룬 연구(Mustaza & Kutty, 2022)와도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릿 수준이 높은 개인은 긍정적인 경험에 더 오래 집중하며 높은 회복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통해 그릿이 또래 관계와 자아 존중감을 통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릿이 주로 학업 관련된 영역에서 연구되어오던 것에서 나아가(김선정, 김봉환, 2022; 이은경, 이선희, 2021),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우울감과 같이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본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발달에 있어 그릿에 대한 긍정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함으로

써,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어서의 보호요인으로써 그릇을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중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이는 우울감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아동의 우울감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다수의 개입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술 향상에만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부정적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그릇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아동의 주요 환경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자아존중감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긍정적인 특성인 '그릇'의 개발에도 중요성을 두고 실천해야 한다. 그릇의 개발에 중요성을 둔다는 것은 성격의 강점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끈기를 유지하는 능력(Duckworth et al., 2007)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닌 긍정심리학의 '강점을 키우기 모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5). Duckworth(2016)에 의하면, 그릇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아동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완수 경험이 중요하다. 이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포함한 특별활동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단지 학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과 같이 그릇을 키우는 환경에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울감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릇이 삶의 만족도인 주관적 웰빙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메타연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임혜정, 유백산, 2022; Hou et al., 2022). 따라서 아동의 그릇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이 직면한 문제를 적응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상쇄시키는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아동의 사회성 증진과 함께 그들의 강점과 흥미에 집중하여 성취경험을 쌓아나가도록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 학교에서 교사, 지역사회에서 멘토가 될 어른들이 아동의 그릇 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그릇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길러줄 수 있는 심리내적 자원이므로 아동에게 그릇을 발달시켜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릇은 대체로 변하지 않는 개인적 특성으로 여겨져 왔지만, 뇌 발달, 신경 과학, 심리적 자원에 대한 연구는 그릇이 생애 전반에 걸쳐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특성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Hwang & Nam, 2021). 관련하여 그릇의 향상을 돕는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참고해볼 수 있겠다. 먼저 자기주도적으로 활동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릇 증진 프로그램을 참고해볼 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혜림, 이종범, 2022). 그리고 그릇향상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에서 그릇 수준을 높이고 진로불안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 등, 2022).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지만 참여자들에게 적응 행동, 목적의식, 긍정성, 성취 경험을 통해 독립적인 대처방식을 습득하도록 도왔는데, 이러한 방식이 그릇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안혜연, 이혜지,

2021). 선행된 그릿 향상 프로그램을 검토했을 때 심리정서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또래관계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아동을 위한 그릿 프로그램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또래관계 어려움으로 우울감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아동의 흥미와 강점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하고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자기 보고하여 제공한 것으로,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영향으로 응답이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그릿의 역할을 확인하였지만, 추후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얻어진 응답을 통해 해당관계를 다각도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택하여 그릿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또래관계가 부모, 교사 등 다른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보고되었음을 고려할 때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그릿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아동의 복합적인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이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그릿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면, 아동에게 그릿을 길러주는 것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근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변인들 간 관계를 횡단적으로 설계하여 변수들 간 관계는 확인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연구를 기반으로 종단적인 맥락에서 동변수들 간 관계를 재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동기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인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학령 후기 아동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다. 부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감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 또래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개입에 집중함으로써 그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우울감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릿이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우울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본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구성원들의 관심 증진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

참고문헌

강석임 (2022).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및 친구 관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 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58, 31-55.
<https://doi.org/10.31409/kjswe.2022.58.3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최근 5년(2017~2021)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 현황 분석[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pageIndex=1#none>
- 권준수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서울: 학지사.
- 곽영숙 (2024).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국립정신건강센터.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7(1), 209-224.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http://dx.doi.org/10.21479/kaft.2009.17.1.209>
- 김나래 (2023).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무기력의 관계: 그릿(Grit)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30(7), 101-118.
<https://doi.org/10.21509/KJYS.2023.07.30.7.101>
- 김선정, 김봉환 (2022). 중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성취의 관계: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및 부모의 긍정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9(4), 75-100.
<https://doi.org/10.21509/KJYS.2022.04.29.4.75>
- 김정은, 조여진, 정정임 (2022).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 불안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8(2), 157-162.
<https://doi.org/10.17703/JCCT.2022.8.2.157>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https://doi.org/10.25020/je.2015.35.3.63>
- 박경리, 김경연 (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 수용도의 영향: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혜림, 이종범 (2022). 그릿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실과교육연구**, 28(3), 55-75.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서수연, 이승봉, 손영민, 백정원, 조은희 (2021) **EBP기반 불안·우울 청소년 상담클리닉 운영모형 개발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doi.org/10.978.898234/8846>
- 송혜리 (2020). **빈곤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안윤숙, 김흥주 (2014).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행경험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5(1), 453-479.
<http://dx.doi.org/10.15818/ihss.2014.15.1.453>
- 안혜연, 이혜지 (2021). 대학생의 그릿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동가족치료연구**, 19, 49-63.
- 여종일, 정문자 (2009).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우울 증상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을 통한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 47(10), 29-37.

- 유설희, 박보경, 도현심 (2015).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6(2), 55-74.
<https://doi.org/10.5723/KJCS.2015.36.2.55>
- 윤혜미, 류나미 (2007).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3, 215-236.
- 이은경, 이선희 (2021).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그릿에 의해 조절된 학업 열의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1), 17-30.
<https://doi.org/10.5723/kjcs.2021.42.1.17>
- 임혜정, 유백산 (2022). 그릿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32(2), 187-212.
<https://doi.org/10.32465/ksocio.2022.32.2.007>
- 장윤정, 신유림 (2010). 또래 괴롭힘 피해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자아 지각 및 또래 신념의 매개 영향. **대한가정학회**, 48(10), 25-35.
<https://doi.org/10.6115/khea.2010.48.10.025>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0.
- 정옥분 (2024). **발달심리학 제4판**. 서울: 학지사.
- 조선화 (2019).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57, 145-169.
<https://doi.org/10.17854/ffyc.2019.01.57.145>
- 최은실, 방희정 (2010). 초등학생의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91-110.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보고 21-R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강의 (2023). **소아정신의학 (3판)**. 서울: 학지사.
-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 Adedeji, A., Otto, C., Kaman, A., Reiss, F., Devine, J., & Ravens-Sieberer, U. (2022).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Results from the German BELLA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12, 767922.
<https://doi.org/10.3389/fpsyg.2021.767922>
- Aronen, E. T. & Soininen, M. (2000).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predict psychiatric problems in young adult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5), 465-470.
<https://doi.org/10.1177/070674370004500507>
- Allen, J. P., Chango, J. & Szewedo, D. (2014). The adolescent relational dialectic and the peer roots of adult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85(1), 192-204.
<https://doi.org/10.1111/cdev.12106>
- Bagwell, C. L., Newcomb, A.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https://doi.org/10.2307/1132076>
- Bean, C. G., Pingel, R., Hallqvist, J., Berg, N., & Hammarström, A. (2019). Poor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social support in early adulthood, and depressive

- symptoms in later adulthood—Evaluating mediation and interaction using four-way decomposition analysis. *Annals of Epidemiology*, 29, 52-59.
<https://doi.org/10.1016/j.annepidem.2018.10.007>
- Bosacki, S., Dane, A. & Marini, Z. (2008). Peer relationship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motional & Behavioural Difficulties*, 12(4), 261 - 282.
<https://doi.org/10.1080/13632750701664293>
- Caldwell, M. S., Rudolph, K. D., Troop-Gordon, W. & Kim. D. Y. (2004). Reciprocal influences among relational self-views, social disengagement, and peer stress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4), 1140-1154.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730.x>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Curry, J., Silva, S., Rohde, P., Ginsburg, G., Kratochvil, C., Simons, A., ... & March, J. (2011). Recovery and recurrence following treatment for adolescent major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8(3), 263-269.
<https://doi.org/10.1001/archgenpsychiatry.2010.150>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cribner.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Duckworth, A. L., Steen, T. A., & Seligman, M. E. P. (2005). Positive psychology in clinical practice. *Annu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1, 629-651.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102803.144154>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Funkhouser, C. J., Ashaie, S. A., Gameroff, M. J., Talati, A., Posner, J., Weissman, M. M. & Shankman, S. A. (2022). Prospectively predicting adult depressive symptoms from adolescent peer dysfunction: A sibling comparison study.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8), 1081-1093.
<https://doi.org/10.1007/s10802-022-00906-4>
- Hammen, C. (2009). Adolescent depression: Stressful interpersonal contexts and risk

- for recurr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4), 200-204.
<https://doi.org/10.1111/j.1467-8721.2009.01636.x>
- Hammen, C., Shih, J. H., & Brennan, P. A. (200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epression: Test of an interpersonal affect model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3), 511 - 522.
<https://doi.org/10.1037/0022-006X.72.3.511>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New York.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 Hou, X.-L., Becker, N., Hu, T.-Q., Koch, M., Xi, J.-Z., & Möttus, R. (2022). Do grittier people have greater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8(12), 1701-1716.
<https://doi.org/10.1177/01461672211053453>
- Hwang, M. H., & Nam, J. K. (2021). Enhancing grit: Possibilit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In: van Zyl, L.E., Olckers, C., van der Vaart, L. (ed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Grit* (pp. 77-93). Springer, Cham.
https://doi.org/10.1007/978-3-030-57389-8_5
- Jung, S., Shin, Y. C., Lee, M. Y., Oh, K. S., Shin, D. W., Kim, E. S., ... & Cho, S. J. (2023).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of Korean employees: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burnout and gri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39, 127-135.
<https://doi.org/10.1016/j.jad.2023.07.010>
- Kurnaz, M.F., Teke, E. & Günaydin, H.A. (2020).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 meta-analysis study. *Research on Education and Psychology*, 4(2), 236-253.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901_4
- Martin, K. M., & Huebner, E. S. (2007). Peer victimization and prosocial experiences and emotion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4(2), 199 - 208.
<https://doi.org/10.1002/pits.20216>
- Mustaza, M. & Kutty, F.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personality and resilience. *Creative Education*, 13(10), 3255-3269.
<https://doi.org/10.4236/ce.2022.1310208>
- Musumari, P. M., Tangmunkongvorakul, A.,

- Srithanaviboonchai, K., Techasrivichien, T., Suguimoto, S. P., Ono-Kihara, M., & Kihara, M. (2018). Grit is associated with lower level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Chiang Mai, Thailand: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3*(12), e020912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09121>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http://dx.doi.org/10.2307/2136676>
- Roach, A. (2018). Supportive peer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An integrative review.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9*(9), 723 - 737.
<https://doi.org/10.1080/01612840.2018.149649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kyi, K. S., Surkan, P. J., Fombonne, E., Chollet, A., & Melchior, M. (2015). Childhood friendships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young adulthood: An 18-year follow-up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4*(7), 815-826.
<http://doi.org/10.1007/s00787-014-0626-8>.
- Walker, W. R., Alexander, H., & Aune, K. (2020). Higher levels of grit are associated with a stronger fading affect bias. *Psychological Reports*, *123*(1), 124 - 140.
<https://doi.org/10.1177/0033294119852579>
- Yang, Q., Shi, M., Tang, D., Zhu, H., & Xiong, K. (2022). Multiple roles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stress and psychological security of college freshmen. *Frontier in Psychology*, *13*, 824214.
<https://doi.org/10.3389/fpsyg.2022.824214>
- Zhang, J., Liu, L., & Wang, W. (2021). The moderating role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Frontier in Psychology*, *12*, 729089.
<https://doi.org/10.3389/fpsyg.2021.729089>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grit in the relationship among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self-esteem, and depressive mood

Sangwon Kim¹ Hyesook Lee² Donghyun Nam³

Han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¹

YONSEIBOM Psychiatry Clinic/ Psychological Counselor²

DODREAM Psychiatry Clinic/ Psychological Counselor³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hildren's grit ha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among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 self-esteem, and depression.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2,607 fourth-grade students (50.4% male) who, responded in the first year of the 2018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sults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First,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 were found to negatively impact self-esteem,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depressive mood. This indicates that children having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 tend to have decreased self-esteem, which can subsequently lead to depressive mood. Second, grit moderated the aforementioned pathway, indicating that the influence of peer difficulties on depressive mood through self-esteem varies according to children's level of gri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protective role of grit against depressive mood in children in the context of challenging peer interactions. A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propos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oncludes this study.

Keywords :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self-esteem, depression, grit,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